

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8. 29.(화) 10:00

5 분 자 유 발 언

(울산쇠부리소리, 문화도시 울산 원동력 되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임 채 오 의 원)

- 울산쇠부리소리, 문화도시 울산 원동력 되길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문화도시 울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상헌 국회의원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도시였던 울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관광도시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이자 울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는 정신의 확장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는 상류층의 고상한 취향을 비롯해 지식인층의 교양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고 지성인들은 물질적인 문명의 개념을 넘어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낭만주의적 의미로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은 이러한 문화의 총체적 개념을 수용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본질이 얹힌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중 하나는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울산시 무형문화재 제7호 ‘울산쇠부리소리’와 같은 지역색이 강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은 비틀즈, 리버풀FC의 명성과 더불어 문화페스티벌 개최, 문화인재 유출을 막는 민관의 협력, 앨버트 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서 문화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주목할 만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전북 익산의 미륵사 터와 왕궁리 유적에는 2022년 한 해동안 73만 명이 다녀가며 2014년 대비 70% 정도 방문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톡톡히 누린 것입니다.

문화자원으로 성공한 두 사례에서 착안한다면,
울산 고유의 문화적 보석인 반구대 암각화와
‘울산쇠부리소리’는 울산을 문화 안식처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걸림돌은 보존 혹은 전승 문제입니다.

다행히 해마다 침수되어 보존문제가 입방아에 오르던
반구대 암각화는 올해 7월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암각화)’과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유산명으로
올해 7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최종 선정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번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초안을
차질 없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울산시,
북구청 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울산쇠부리소리’입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고된 쇠부리과정에서 힘을 돋우고,
합을 맞추는 노동요입니다.

“자발적 산업근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철기에 관한 노동요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닌 문화자원입니다.

그러나 전승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정확한 가사나 악보 없이
쇠부리 불매꾼에 구전되어 왔습니다.

울산의 철 생산이 중단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했으나,
1981년 울산 한실 쇠부리터에서 일했던 불매대장
최재만 옹의 구술이 채록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또 한번 소멸될 위기를 겪거나 전승자 고령화, 이수자 부족
등의 문제로 명맥이 끊기고 있는 여타 무형문화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5월 이상헌 국회의원이 주관해 열린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자들이 등재에 힘을 실어준 데는
일정 부분 이러한 우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는 지역의 문화자원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고유성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 문화재청은 울산 쇠부리기술을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쇠부리기술의 복원 및 전승 체계 구축을 위해 연간 최대 2억 원,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높은 문화의 힘’은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이 쓰신 <나의 소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세계 인류를 위하는 일이며 세계를 무력이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사이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도시 복구, 문화행복이 넘치는 복구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